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5호

2024년 8월

건강검진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행 1:12-26)	전 준 덕	3
에베소서 읽기(4)	손 현 섭	18
바울 사도 소전(小傳)6(1)	최 정 일	25
형제의 연합	한 정 주	37
엘리야의 승천과 모압과의 전쟁	조 규 철	44
예수전(200)	김 형 철 역	49
용서와 기다림	최 제 현	55
2024 가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	편 집 실	65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66

성서신애사

건강 검진

2년마다 돌아오는 건강 검진을 받았다.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식사도 잘 하는 편이어서 건강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척추 때문에 다리에 마비가 와서 수술을 받았고, 한 달 전부터는 무릎이 아파서 연골주사도 맞게 되었다. 오래전 아팠던 어깨 통증도 재발하여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중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진 결과가 아주 실망스럽게 나왔다. 건강지표 상당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정작 그런 결과를 받으니 좀 심란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구순에 가까운 나이가 되신 김영웅 선생님이 ‘신앙의 마중물’에 ‘삼키고 배설하기’라는 제목으로 고령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그리고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고 쓰신 글을 보았다. 너무나 공감이 되었다.

선생님은 글의 말미에서, ‘하늘 소망의 끝을 단단히 매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무너져가는 육신에도 허락하신 믿음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에 매진하러 한다’고 감동을 안겨주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요18:36).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내 신체가 늙고 쇠해가는 현상은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한다(손현섭).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1:12-26)

전 준 덕

12절 : Τότε ὑπέστρεψαν εἰς Ἱερουσαλὴμ ἀπὸ ὄρους τοῦ καλοῦναι ἐλαιῶνος, ὃ ἐστὶν ἐγγὺς Ἱερουσαλὴμ, σαββάτου ἔχον ὁδόν.

사역 :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감람이라는 산에서 히에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산은 히에루살에서 가깝고 안식 날에 다닐만한 행로였습니다.

주) 1. τότε(부) (시간에 대해) : (그 때에, 그 때에는, (미래적) : 그 다음에, 그리고서, 그리고 나서)

2. ὑπέστρεψαν : ὑποστρέφω(ὑπό+στρέφω의 합성동사) (물러가다, 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3. ὄρους : ὄρος(산, 언덕, 높은 언덕)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4. καλοῦμένου : καλέω(단축동사)(부르다, 이름 짓다, 일컫다, 명명하다, 초대하다, 초청하다,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 호출하다)라는 동사의 현, 중(수), 분, 남(중), 단, 소유격(본절은 중성).

5. ἐλαιῶνος : ἐλαιών(올리브 숲, 감람산, 올리브 동산)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6. ὃ : ὅς의 중, 단,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1:1)

7. σαββάτου : σάββατον(안식일, 일곱째 날, 주간, 주일의)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 명사의 단, 소유격.

8. ἔχον : ἔχω(가지다, 소유하다, 차지하다, 손에 쥐다, 취하다, 얻다, 붙잡다, 차다, 신다, 쓰다, 말다, 신뢰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있다, 헐다, 풀다, 품다, 포함하다, 생각하다, 해야 하다, 할 수밖에 없다, 보다 ~할 처지에 있다. ἔχω+부정사 : ~할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지다, ~할 처지에 있다, ~을 해야 한다. (능동태, 자동) : ~다, ~있다, ~이다. (중) 굳게 하다, 고착하다, 집착하다, 매달리다, 속하다, 인접하다, (시간) : 바로, 다음날, 이튿날)이란 동사의 현, 능동, 분, 중, 단,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9. ἐγγύς(부) : (가깝게, 근처에)

10. ὁδόν : ὁδός(길, 도로, 행길, 여행, 행로, 행위, 도리, 교훈 도(道))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13절 : καὶ ὅτε εἰσῆλθον ἀνέβησαν εἰς τὸ ὑπερῶν,(ἀνέβησαν,) οὗ ἦσαν καταμένοντες ὃ τε Πέτρος καὶ Ἰάκωβος(Ἰωάννης) καὶ Ἰωάννης(Ἰάκωβος) καὶ Ἀνδρέας, Φίλιππος καὶ Θωμᾶς, Βαρθολομαῖος καὶ Ματθαῖος,(Μαθθαῖος,) Ἰάκωβος Ἀλφαίου καὶ Σίμων ὁ Ζηλωτής, καὶ Ἰούδας Ἰακώβου.

사역 : 이제 저들은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페트로스, 이아코보스, 이오안네스, 안드레아스, 필립포스, 도마스, 바르돌로마이오, 맛다이오스, 및 알파이오스의 아들 이아코보스와 제로테스의 시몬과 이아코보스 아들 이우다스가 함께 머물러 설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 1. ὅτε(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및 불변사) (직설법 동사와 함께 쓰임) : (~ 때, ~동안, ~날에)

2. εἰσῆλθον : εἰσέρχομαι(εἰς+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 (들어가다, 들어오라, ~중에 끼다, 누리다, 즐기다)라는 dep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과, 복, 3인칭(본절은 복, 3인칭).

3. ἀνέβησαν : ἀναβαίνω(ἀνά+βαίνω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올라가

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4. ὑπερῶν : (상층, 위층, 이층, 다락방)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 명사의 단,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5. οὗ : ὅς의 남(중), 단, 소유격(부사로 쓰일 때는) : ~곳, ~곳에, ~곳으로) (본절은 부사)

6. καταμένοντες : καταμένω(κατά+μέ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머물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직설, 분, 남, 복, 주격.

14절 : οὗτοι πάντες ἦσαν προσκατεροῦντες ὁμοθυμαδὸν τῇ προσευχῇ καὶ τῇ δεήσει, σὺν γυναιξὶν καὶ Μαρίᾳ(Μαριάμ) τῇ μητρὶ τοῦ Ἰησοῦ, καὶ σὺν τοῖς ἀδελφοῖς αὐτοῦ.

사역 : 이 사람들은 여인들과 이에수스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모두 한 마음을 품고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였습니다.

주) 1. οὗτοι : οὗτος의 남, 복, 주격. (1:5)

2. πάντες : πᾶς의 남, 복, 주격. (1:1)

3. προσκατεροῦντες : προσκατερέω(πρός+κατερ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집착하다, 꾸준히 계속하다, 애착심을 가지다, 시중들다, 충성하다, ~에 분주하다, 전념하다, 계속하다, 꾸준히 ~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4. προσευχῇ : προσευχή(πρός+εὐχή의 합성어) (기도, 기도처, 기도소, 교회당)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5. δεήσει : δέησις(소원, 기도, 간구)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6. ὁμοθυμαδόν(ὁμός+θυμός의 합성어) (부) : (한 마음으로, 한뜻으로,

다같이, 동시에, 단번에)

7. σύν(전) (여격지배) : (함께, 같이, 동시에, 더불어, ~와 같이, ~의에도, ~뿐만 아니라)

8. γυναῖξιν : γυνή(여자, 부인, 아내, 신부)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여격.

9. μητρί : μήτηρ(어머니, 모친)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10. ἀδελφοῖς : ἀδελφός(형제, 형, 동생, 동포, 믿음의 형제, 동지, 이웃)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여격.

15절 : Καὶ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ταύταις ἀναστὰς Πέτρος ἐν μέσῳ τῶν μαθητῶν(ἀδελφῶν) εἶπεν· ἦν τε ὄχλος ὀνομάτων ἐπὶ τὸ αὐτὸ ὥς (ὥσει) ἑκατὸν εἴκοσιν·(εἴκοσι.)

사역 : 그 때에 페트로스가 같은 동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수가 백이십명쯤 되었습니다.

주) 1. ταῖς : ὁ(관사)의 여, 복, 여격. (1:1)

2. ἡμέραις : ἡμέρα의 복, 여격. (1:2)

3. ταύταις : οὗτος의 여, 복, 여격. (1:5)

4.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ταύταις(그 때에)의 전치사구로 한 속어.

5. ἀναστὰς : ἀνίστημι(ἀνά+ῖστημι의 합성동사) (능) 일으키다, 세우다, 살리다. (자) 일어나다, 서다, 살아나다, 나타나다, 이르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채비하다, 떠나다)라는 ~μι동사의 제2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6. μέσῳ : μέσος(중간의, 가운데의, 중심의, 사이의, 앞의)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중), 단, 여격(본절은 중성).

7. ἐν μέσῳ : (한 가운데, 앞에)의 속어
8. μαθητῶν : μαθητής(제자, 생도, 배우는 사람, 견습생)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소유격.
9. ἦν : εἰμί의 미완, 직설, 단, 3인칭. (1:1)
10. ὄχλος : (군중, 민중, 무리, 백성, 평민, 서민, 천민, 소동, 소란, 다수)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주격.
11. ὀνομάτων : ὄνομα(이름, 명성, 명칭, 칭호, 종류, 사람)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소유격.
12. αὐτό : αὐτός의 중성, 단, 주격과 대격. (본절은 대격) (1:3)
13. ἐπὶ τὸ αὐτό : (같은 장소에, 다같이, ~에, 곁에)의 속어.
14. ἑκατόν(불변) : (백, 일백)
15. εἴκοσι(불변) : (이십, 스물)

16절 : Ἄνδρες ἀδελφοί, ἔδει πληρωθῆναι τὴν γραφὴν ταύτην, ἣν προεῖπε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διὰ στόματος Δαβὶδ(Δαυΐδ) περὶ Ἰούδα τοῦ γενομένου ὁδηγοῦ τοῖς συλλαβοῦσιν τὸν Ἰησοῦν

사역 :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령님께서 다비드의 입을 통해 미리 말한 대로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에게 협조한 이우다리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으니 당연합니다.

- 주) 1. ἀδελφοί : ἀδελφός의 복, 주격과 호격(본절은 호격). (1:14)
2. ἔδει(δει의 비인칭동사) : δέω(반드시 ~해야 한다, 꼭~해야 한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필요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직설, 단, 3인칭(이 동사는 대격과 부정사 동사를 취함).
3. πληρωθῆναι : πληρώ(단축동사)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케 하다, 이루다, 완성하다, 마치다, 끝내다, 성취하다, 마감하다, 실현하다

(수) 가득차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부정사.

4. γραφήν : γραφή(문서, 기록문, 성경)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 명사의 단, 대격.

5. ταύτην : οὗτος의 여, 단, 여격. (1:5)

6. προεῖπεν : προλέγω(πρό+λέγω의 합성동사) (미리 말하다, 예고하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7. ἅγιον : ἅγιος의 중,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8. στόματος : στόμα(입, 말, 재능, 땅이 갈라짐, 지진, 칼날)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9. γενομένου : γίνομαι(되다, 있다, 생기다, 나타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탄생하다, 산출하다, 이르다, 오다,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 창조하다, 실천하다, 제정되다)라는 dep 동사의 제2과 중간, 분, 남(중), 단, 소유격(본절은 남성).

10. ὁδηγοῦ : ὁδηγός(지도자, 안내자, 인도자, 협조자)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11. συλλαβοῦσιν : συλλαμβάνω(σύν+λαμβά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붙잡다, 쥐다, 체포하다, 배다, 아이를 배다, 임신하다, (중) 붙잡다, 체포하다, 돕다, 협조하다, 동조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중), 복, 여격(본절은 남성).

17절 : ὅτι κατηριθμημένος ἦν σὺν(έν) ἡμῖν, καὶ ἔλαχεν τὸν κλῆρον τῆς διακονίας ταύτης.

사역 : 그가 우리와 함께 동참했던 자라 그래서 이 직무의 몫을 책임받았던 것입니다.

주) 1. κατηριθμημένος : καταριθμέω(κατά+ἀριθμ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계수하다, 간주하다, 세다, 수에 넣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 남, 단, 주격.

2. ἔλαχεν : λαγχάνω(비음동사) (받다, 얻다, 제비 뽑아 지명받다, 택정받다, 제비뽑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3. κλήρον : κληρος(제비. 분깃, 몫, 제비 뽑아 얻는 것, 몫을 결정짓는 것)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4. διακονίας : διακονία(διά+κονία의 합성어)(봉사, 섬김, 직무, 구조, 원조, 기증, 집사직)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5. ταύτης : οὗτος의 여, 단, 소유격. (1:5)

18절 : Οὗτος μὲν οὖν ἐκτίσατο χωρίον ἐκ τοῦ μισθοῦ τῆς ἀδικίας, καὶ πρηνὴς γενόμενος ἐλάκησεν μέσος, καὶ ἐξεχύθη πάντα τὰ σπλάγχνα αὐτοῦ.

사역 :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한 샅으로 밭을 구입하였소. 그래서(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떨어져 배가 찢어져서 그의 모든 창자를 밖으로 쏟아냈습니다(쏟아져 죽었습니다.).

주) 1.ἐκτίσατο : κταόμαι(κτῶμαι) (얻다, 획득하다, 구하다)라는 dep 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단, 3인칭.

2. χωρίον(χώρα의 지소사) : (곳, 장소, 땅, 토지. 밭, 농장, 들)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 (본절은 대격)

3. ἐκ(전) (소유격 지배) : (~에서, ~으로 부터, ~에서 밖으로, 멀리 떨어져서, 말미암아, 때문에, ~까닭에, 의하여, 위하여, 후에, ~으로 된, ~으로 만든, 동안)

4. μισθοῦ : μισθός(샅, 품샅, 보답, 상, 보응, 벌)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5. ἀδικίας(ἀ+δίκαιος의 합성어) : (나쁜 짓, 잘못함, 불의, 부정, 악함)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6. πρηνής : (거꾸로, 곤두박질한, 떨어져, 엎드려진, 팽창된, 부풀은)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주격.

7. γένόμενος : γίνομαι의 제1과, 중간, 분, 남, 단, 주격. (1:16)

8. ἐλάκησε : λάσκω(파괴하다, 깨뜨리다, 부서지다, 터뜨리다, 추락하다, 소리내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9. ἐξεχύθη : ἐκχέω(ἐκ+χέω의 합성동사) (쏟아내다, 붓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10. πάντα : πᾶς의 남, 단, 대격. (1:1)

11. σπλάγχνα : σπλάγχνον(내장, 심장, 마음, 감정, 애정, 긍휼, 자비, 사랑)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19절 : καὶ γνωστὸν ἐγένετο πᾶσιν(πᾶσι)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Ἱερουσαλήμ, ὥστε κληθῆναι τὸ χαρίον ἐκεῖνο τῇ ἰδίᾳ διαλέκτῳ αὐτῶν Ἀκελδαμά, (Ἀκελδαμάχ,) τουτέστιν (τοῦτ' ἔστιν,) Χαρίον αἵματος.

사역 : 이 사실이 히에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발을 저들의 본 방언으로 “아겔다마”라 칭하게 되었는데 곧 피발이라는 뜻입니다.

주) 1. γνωστὸν : γνωστός(알려진, 알만한, 주목할 만한, 확실한, 친지, 친구)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ἐγένετο는 서술 주격)

2. ἐγένετο : γίνομαι의 제2과 중간, 직설, 단, 3인칭. (1:16)

3. πᾶσιν : πᾶς의 남(중), 복, 여격(본절은 남성). (1:1)

4. κατοικοῦσιν : κατοικέω(κατά+οικ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살

다, 유숙하다, 거주하다, 자리 잡다, 서식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여격.

5. ὥστε(접) : (ὥς+τε의 합성어)(~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할 목적으로, ~할 생각으로, ~하기 위하여)

6. κληθῆναι : κα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수동, 부정사. (1:12)

7. ἐκεῖνο : ἐκεῖνος(지시, 대) (저, 저것, 저 사람)의 중, 단, 주(대)격. (본절은 대격)

8. διαλέκτω : διάλεκτος(διά+λέγω의 합성어) (말, 언어, 말투, 방언)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9. τοιτέστιν(τοῦτο+έστίιν의 합성어 = τοῦτ'+έστίιν) : (말하자면, 곧, 즉)

10. αἷματος : αἷμα(피 : 血)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20절 : γέγραπται γὰρ ἐν βίβλῳ ψαλμῶν, Γενηθήτω ἡ ἔπαυλις αὐτοῦ ἔρημος, καὶ μὴ ἔστω ὁ κατοικῶν ἐν αὐτῇ. καί, Τὴν ἐπισκοπὴν αὐτοῦ λάβον(λαβέτω) ἕτερος.

사역 : 그러므로 시편 책에 “그의 거처할 집이 황폐하게 하시며, 그 집 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한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1. γέγραπται : γράφω(기록하다, 적어두다, 작성하다, 편지를 써 보내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 직설, 단, 3인칭.

2. γάρ(접) : (왜냐하면, 그러면, 말하자면, 이를테면, 확실히, 꼭, 참으로, 그러니까)

3. βίβλω : βιβλος(책, 두루마리)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여격.

4. γενηθήτω : γίνομαι의 제1과, 수동, 명령, 단, 3인칭. (1:16)

5. ψαλμῶν : ψαλμός(노래, 찬송가, 연주, 시편)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소유격.

6. ἔπαυλις(ἐπί+αύλη의 합성어) : (농장, 농가, 오두막, 집, 주택)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주격.

7. ἔρημος : ((형) 황막한, 한적한, 적막한, 고적한, 버림받은, 텅빈, 외로움 (명) 광야, 빈들, 사막, 한적한 곳, 적막한 곳)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주격(명사로써는 여성명사의 단, 주격).

8. ἔστω : εἰμί의 현, 명령, 단, 3인칭. (1:1)

9. κατοικῶν : κατοικέω(κατά+οικ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단, 주격. (1:19)

10. αὐτῇ : αὐτός의 여, 단, 여격. (1:3)

11. ἐπισκοπὴν : ἐπισκοπή(ἐπί+σκοπός의 합성어) (찾아옴, 방문, 은총, 조사, 감독, 처벌, 재앙, 기능, 감독의 직분, 지위)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12. λάβοι : λαμβάνω(비음동사)의 제2과, 능동, 회구, 단, 3인칭. (1:8)

13. ἕτερος : (다른, 낯선, 이웃, 또 하나의, 상이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주격.

21절 : Δεῖ οὖν τῶν συνελθόντων ἡμῖν ἀνδρῶν ἐν παντὶ χρόνῳ ἐν ᾧ εἰσῆλθεν καὶ ἐξῆλθεν ἐφ' ἡμᾶς ὁ κύριος Ἰησοῦς,

사역 : 그러므로 주 예수스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녔던 모든 사람 중에서

주) 1. συνελθόντων : συνέρχομαι(σύν+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 (같이

오다, 가다, 함께 오다, 가다, 모이다, 동반하다, 만나다, 같이 살다, 연합하다)라는 dep 동사의 제2과, 능동, 분, 남, 복, 소유격.

2. ἀνδρῶν : ἀνήρ의 복, 소유격. (1:16)

3. παντί : πᾶς의 남, 단, 여격. (1:1)

4. ᾧ : ὅς의 남, 단, 여격. (1:1)

5. εἰσῆλθεν : εἰσέχομαι(εἰς+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라는 dep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13)

6. ἐξῆλθεν : ἐξέρχομαι(ἐκ+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 (나오다, 나가다, 가버리다, 물러가다, 떠나가다, 빠져나가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피하다, 날아가다, 퍼지다, 나타나다)라는 dep 동사의 제2과, 중(수), 직설, 단, 3인칭.

7. ἡμᾶς : ἐγώ(인칭, 대)의 복, 대격. (1:4)

22절 : ἀρξάμενος ἀπὸ τοῦ βαπτίσματος Ἰωάννου ἕως τῆς ἡμέρας ἧς ἀνελήφθη

(ἀνελήμφθη) ἀφ' ἡμῶν, μάρτυρα 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αὐτοῦ γενέσθαι
1. σὺν ἡμῖν(γενέσθαι) ἕνα τούτων.

사역 : 곧 침례 이오안네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운데 승천하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다니던 사람중에) 그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할 한 사람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주) 1. ἀρξάμενος : ἄρχω의 제1과, 중간, 분, 남, 단, 주격. (1:1)

2. βαπτίσματος : βάπτισμα(담금, 씻음, 침례, 세례)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3. μάρτυρα : μάρτυς의 단, 대격. (1:8)

4. ἀναστάσεως : ἀνάστασις(ἀνά+στάσις의 합성어) (올라감, 부활)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5. γενέσθαι : γίνομαι의 제2과, 중간, 부정사. (1:16)
6. ὑμῖν : σύ(인칭, 대)의 복, 여격. (1:5)
7. ἓνα : εἷς(하나, 일, 유일한, 오직)의 남, 단, 대격.
8. τούτων : οὗτος(지시, 대)의 남, 복, 소유격. (1:5)

23절 : καὶ ἔστησαν δύο, Ἰωσήφ τὸν καλούμενον Βαρσαβᾶν(Βαρσαβᾶν) ὃς ἐπεκλήθη Ἰοῦστος, καὶ Μαθθαῖον.(Μαθθαῖον.)

사역 :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을(정하여) 세웠는데 한 사람은 바르사반이라 하기도 하고 별명은 이우스토스라 하는 이오셉과 맛디아스였습니다.

- 주) 1. ἔστησαν : ἵστημι의 제2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1:11)
2. καλούμενον : καλέω(단축동사)의 현, 중(수), 분, 남, 단, 대격. (1:12)
3. ἐπεκλήθη : ἐπικαλέω(ἐπί+καλ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부르다, 청하다, 이름 붙이다, 이름을 주다, 별명을 주다 (중)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원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24절 : καὶ προσευξάμενοι εἶπον.(εἶπαν) Σὺ Κύριε, καρδιογνώστης πάντων, ἀνάδειξον(ὃν ἐξελέξω) ἐκ τούτων τῶν δύο ὃν ἓνα, ἐξελέξω.

사역 : 이제 저들은(간절히) 기도한 후에 말했습니다. (천하) 만민의 마음을 아시는 당신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사 (사도직을) 허락하소서.

- 주) 1. προσευξάμενοι : προσεύχομαι(πρός+εὔχομαι의 합성동사)

(기도하다, 기도 드리다)라는 dep 동사의 제1과, 중간, 분, 남, 복, 주격.

2. καρδιογνώστα : καρδιογνώστης(καρδία+γινώσκω의 합성어) (마음을 아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호격.

3. ἀνάδειξον : ἀνάδεικνυμι(ἀνά+δείκνυμι의 합성동사) (드러내 보이다, 나타내 보이다, 명백히 보여 주다. (어떤 지위를) 임명하다, 위임하다, 허락하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능동, 명령, 단, 2인칭.

4. ἐξέλξω : ἐκλέγω(ἐκ+λέγω의 합성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단, 2인칭. (1:2)

25절 : λαβεῖν τὸν κληρὸν(τόπον) τῆς διακονίας ταύτης καὶ ἀποστολῆς, ἐξ(ἀφ') ἧς παρέβη Ἰούδας, πορευθῆναι εἰς τὸν τόπον τὸν ἰδιον.

사역 : 이 봉사와 사도직을 감당할 자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이우다스는 (스스로) 사도직을 버리었고 제 갈 곳으로 갔나이다.

주) 1. λαβεῖν : λαμβάνω의 제2과 능동, 부정사. (1:8)

2. ἀποστολῆς : ἀποστολή(사도직, 파송)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3. παρέβη : παραβαίνω(παρά+βαίνω의 합성동사) (결길로 가다, 빗나가다, 범하다, 깨뜨리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4. πορευθῆναι : πορεύομαι의 제1과, 수동, 부정사. (1:10)

5. τόπον : τόπος(장소, 곳, 위치, 지방, 지역, 자리, 지위, 직임)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6. ἰδιον : ἴδιος의 남, 단, 대격. (1:7)

26절 : καὶ ἔδωκαν κλήρους αὐτῶν,(αὐτοῖς,) καὶ ἔπεσεν ὁ κλῆρος ἐπὶ Ματθαίαν,(Μαθθαίαν,) καὶ συγκατενηφίσθη μετὰ τῶν ἑνδεκα ἀποστόλων.

사역 : 이제 저들은(각자) 자기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제비는 맛디아스라는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한 사도들과 함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 1. ἔδωκαν : δίδωμι(주다, 받치다, 하사하다, 수여하다, 진술하다, 말하다, 위탁하다, 부탁하다, 돌려주다, 나누어 주다, 맺다, 내다, 갚다, 지불하다, 따지다, 두다, 놓다, 임명하다, 남다, 희생하다, 노력하다, 수고하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2. κλήρους : κλῆρος의 복, 대격. (1:17)

3. ἔπεσεν : πίπτω(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망하다, 엎드러지다, 자빠지다, 붕괴하다, 박살나다, 죄에 빠지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약해지다, 닳치다, 끝나다, 실패하다, 덮치다, 기회가 오다, 햇빛이 비취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법, 단, 3인칭.

4. συγκατενηφίσθη : συγκατανηφίζω(σύν+κατανηφίζω = κατά+ψηφίζω의 이중 합성동사) (수에 넣다, 계산하다, (제1과, 수동태) : 함께 뽑히다, 가입하다, 택함받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5. μετὰ(전) (소유격과 대격지배) (본절은 소유격 지배) : (함께, 같이, 가운데, ~으로써, 도와서, 대항하여) (대격 지배는 1:3절 참조)

6. ἑνδεκα(έν+δέκα의 합성어) : (십일, 열하나)

7. ἀποστόλων : ἀπόστολος(사신, 사절, 대표, 대의원, 사자, 사도)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소유격.

【7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7쪽22줄	10. πολλοῖς : πολός	10. πολλοῖς : πολύς
7쪽9줄	능동태, 직설법, 단수	능동, 직설, 단,
8쪽 14줄	θεῶ : θεός	θεῶ : θεοῦ
10쪽22줄	<u>ἐπὶ πρώτων</u>	<u>ἐπι πρώτων</u>
11쪽9줄	4. ἐπὶ πρώτων	4. ἐπι πρώτων
11쪽18줄	χρόνος(시간)	χρόνος(시간
12쪽13줄	(모음 앞에서는 οὐκ임)	(모음 앞에서는 οὐκ임)
15쪽2줄	(1:3)	(1:5)
15쪽12줄	ὁ(관심)	ὁ(관사)
15쪽19줄	10절 ~ οὐρανόν	10절 ~ οὐρανὸν
16쪽24줄	~μι동사의 과, 완료	~μι동사의 과완료
17쪽6줄	εἰς τὸν οὐρανό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17쪽8줄	너희는 서서 하늘을	너희는 어찌 서서 하늘을
17쪽15줄	3. τί : τίς(의분, 대)	3. τί : τίς(의문, 대)
17쪽16줄	(부) 어찌 어찌하여	(부) 어찌, 어찌하여
18쪽5줄	ἔρχομαι	ἔρχομαι

에베소서 읽기(4)

(영원한 언약)

손 현 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엡 새번역1:3).

1. 들어가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마지막 장소가 에베소였다. 그곳에서 3년을 머무르며 신자들을 가르치고 직접 천막 작업을 하며 생계도 같이 하였다. 그리고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이었다. 그들에게 다시는 얼굴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 아쉬워하며, 약한 신자들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였다. 그들은 서로 울면서 이별을 했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5-6년 지나서(AD 62-63), 로마의 옥중에서 쓴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부른다. 1-2절에 에베소 신자에게 편지한다는 글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소아시아 여러 에클레시아에 전하는 회람용 서신이라고 한다. 로마의 옥에 갇힌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전달책 드기고가 가장 먼저 이 서신을 전한 곳이 에베소였다. 그곳에서 이를 읽고, 사본을 여럿 만들어 소아시아의 여러 에클레시아에 보냈을 것이라고 한다.¹⁾

바울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주변의 에클레시아들을 마음에 두고 쓴 편지여서인지 그 내용은 참 애뜻하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1) <https://kurosaki-commentary.com/49overall.html>

애끓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는 축복이 있다. 에베소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여러 곳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한없는 사랑과 신뢰를 볼 수 있는 1-2절이었다.

오늘 역시 인사말에 속하는 3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면서 에베소의 신자들이 받게 될 신령한 복을 기원해주는 내용이다.

2. 본문 살피기

이 3절은 인사말이지만, 어쩌면 서신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본문을 단어 연결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순서로 공부를 해보기로 하자.

- 찬양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1) 찬양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거라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것도 찬양의 한 가지 방법이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니, 화가들은 그림으로, 작가는 글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모든 장르를 동원하여 찬양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찬양을 조용히 듣고 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들어있다면 찬양이라 하겠다. 그래서 찬양의 수단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자. 무서운 핍박과 공포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 이집트의 고대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여행할 때 지하교회 카타콤에 간 적이 있다. 박해를 피해 들어간 지하동굴의 구불구불한 흙벽에는 이집트 신들의 조각상

과 함께 놀랍게도 성서 구절과 감사의 노래 가사가 남아 있었다. 그 불편한 지하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믿음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특별한 기쁨과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신이 외우는 성서 구절, 즐겨 부르던 찬송을 벽에 그렸을 것이다. 못으로 굵은 듯한 자국을 보며 그들의 신앙에 감동했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찬양의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봉인이 해제될 때마다 쏟아진 재앙을 시작으로 나팔재앙, 대접재앙 등 수많은 재앙이 난무하는 지상의 모습을 기록하다가, 천상으로 장면이 옮겨지면 어김없이 성도들과 천사의 찬양이 등장하였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항상 즐겁고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아니다. 불행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은 세상이다. 그러나 성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주문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왔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무수하게 많은 증인을 볼 수 있다.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히브리서 11장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어디선가 진행중일 것이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1-2절에서 인사를 끝내고 본문을 시작하면서 쓴 말이 “찬송하자!”인데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그 찬송의 내용이 앞으로 14절까지 이어질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나오는 감격이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 없이 그저 감정이 고조되어서 노래하는 경우는 ‘찬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저 아름답게 혹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이다. 찬양이란 기계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다. 그랜드캐년의

경치를 보거나 아름다운 꽃밭을 볼 때 나오는 1회성 감격으로 그치고 말지 않겠는가?

하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2천 년 전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깨닫게 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직접 체험을 한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이다. 그 행복한 찬양은 신자들만의 특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서 감사해서 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아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이것이 찬양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조명한 교수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는 특정한 전치사구들과 의미관계의 주제들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송이 나뉠의 운율을 갖고 있는 축복(찬양)의 기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내용면에서 이 찬양은 삼위일체의 각 위인 하나님(6절), 그리스도(12절), 그리고 성령(14절)을 주제로 삼는다. 그러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가 중심이다. 삼위의 각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바지하는 바를 명세하지만, 이 찬미에서 구원은 배경(ground)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경(figure)이다.

이 찬미를 에베소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관한 구원사의 맥락에서 서술한다. (중략)

우리는 이 단원을 읽으며 감히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기에 찬양하느냐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성질을 깨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다.²⁾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 여기서 굳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긴 수식어를 붙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도록 하신 이가 그리스도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까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묘사한 이유가 아주 크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 중보자, 보증자이며, 모든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찬양할 수 있으려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을 보고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 역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여 웬지 미사여구가 붙은 듯한 느낌이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온 모든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가르치기 위해, 창세 전 성부-성자-성령 삼위간에 이루어진 언약의 일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2) 조명한, 에베소서 이해, 35-36쪽.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셨을 것이다. 성부이신 아버지는 자녀로 부르실 백성을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은 자발적으로 그 백성을 책임졌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들에게 오는 자들은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였다. 생명을 주시는 계약의 조건은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으로 살다가 인류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었다. 죄인을 대신(대표)하여 고난을 받으리라고 계약하셨다. 그 일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사실로 알 수 있다. 이 일은 창조가 있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고, 십자가 죽음으로 그 계획을 완성하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 처소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축복은 영적이어서 세상의 생각과 욕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새 생명에 관한 축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 장소가 하늘 보좌라 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자. ‘하늘의’는 에포우라니오이스 επουρανιους는 어떤 장소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천적(天的)인 축복의 성질을 설명한다고 본다. ‘신령한’의 원어 표현도 프뉴마티케 πνευματικη로 역시나 ‘영적인’이라는 뜻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란 결국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3. 맺으며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자(창 1:26).”라고 하셨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라는 복수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그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존재를 가리킨다고 본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전설이나 신화 같은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사실로 믿어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설명하기 어려운’ 삼위일체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머리로가 아니다. 체험으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경륜(經輪)을 따라 삼라만상을 경영하시며, 자신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불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과 소통하셨고,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짧은 공생애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는 성령으로 활동하신다. 쓰카모토 토라지(塚本虎二)도 ‘사도신경 강의’ 중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자신은 부모님이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의심할지언정 성령의 활동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그렇다. 신자는 실생활에서 성령의 활동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며 산다.

성령이 아니면 누가 내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본 적도 없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보겠는가?
누가 나에게 성서가 하나님의 책이라 가르쳐 주는가?
나 자신, 내 가족, 육의 일, 땅의 일만 바라던 나를
하늘의 일에 마음 두게 하는 이, 누구이신가?³⁾

3) 塚本虎二著作 續2권, 244쪽.

바울 사도 소전(小傳)6(1)

최 정 일

1.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기원 49-52년 또는 52-54년)및 제3차 전도여행(기원 52-56년 또는 54-59년)

2.

(1) 유대주의적 거짓 형제들은 바울 사도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유대주의적 거짓 형제들의 시도에 대하여 마케도니아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가야에서 전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주의 깊게 할례나 율법 규정을 들먹이지 않고 아가야 주민들(=그리스인들)의 철학적·문학적 취향을 만족시켰다. 즉 유대주의적 거짓 형제들의 「사변적(=이론적) 복음」이 아가야 에클레시아들 앞에 과시되었다.

(2) 다음으로 1)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진실성과 나아가 심지어 2) 바울 사도의 인격적 올바름과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심어졌다. <고린도전서>는 도처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바이체커가 말하듯이 임박한 폭풍우의 불길한 예감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이 폭발하지 않도록 애쓴다. 물론 심각한 암시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서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훈시하고 설득하려고 애쓴다.

(3) 그러나 이 갈등의 모든 난폭한 모습은 바로 고린도후서(기원 55년경 마케도니아에서 집필됨)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고린도후서에는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신자에게 보낸 이후의 어떤 극도의 개인적 대립에 대한 수많은 암시가 담겨 있다. 고린도후서는 주의 깊은 독자로 하여금 신약성서에 포함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두 개의 편지와, 고린도 방문 뒤에 작성된 분실된 그 중간의 편지 사이에 있었던 바울 사도의 고린도 체류를

추측하게 만든다. 이 추측은 신약성서의 주의 깊은 연구에 의한 우리의 확신이고 많은 학자가 이를 지지한다.

(4)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다. 이 견해는 바울 사도의 일생에 대한 일반적 연대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고린도전후서 사이의 ‘이 잃어버린 중간의 편지’는 바울 사도의 가장 고통스런 체험과 예민한 감정 속에서 기록되었다고 본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자신이 공들여 세운 고린도 에클레시아와의 완전한 결별 직전에 있었다.

(5)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바울 사도의 적들에게 속아서 공개적으로 바울 사도에 대해 순종을 거부했다. 고린도 신자 중 일부는 감히 바울 사도의 정직성과 공정성에 큰 비난을 퍼부었다.

1)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뻔뻔스럽게 조롱했고

2) 바울 사도가 야심가이고 교만하다고 했으며

3) 바울 사도가 겉으로는 무보수로 전도 활동을 했지만, 실은 그의 일꾼들을 통하여 몰래 재물을 착복했다고 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이 모든 비난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토록 공들여 세운 고린도 에클레시아에서 나왔으며, 나아가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이런 무례한 명예 훼손자들의 발언을 중지시키지 않았다.

(6)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자신이 세운 에클레시아 한가운데서 감히 공격한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들을 비꼬아 ‘말하자면 이 유명한(=특출한=고귀한) 사도들’이라고 부른다. 이 칭호는 분명히 추종자들이 그들에게 인사할 때 부르는 말이었을 것이다.

(7) 바우어와 그 제자들 그리고 힐겐펠트는 두려움 없이 이 칭호를 ‘원래의 사도들인 12사도와 그 제자들 및 그들이 파송한 자들’에 대한 칭호라고 본다.

바우어와 힐겐펠트의 이 주장은 그동안 널리 퍼져서 뿌리를 내렸으나 바이체커, 카임과 하르나크 같은 건실한 비판자들이 나타나서 ‘이 편파적이고 난폭한 독단적 단언’을 공격했다. 사실 ‘이 말하자면 유명한(=특출한=고귀한) 사도들’이 12사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매우 쉽다.

고후 11:3-6의 말씀이다.

(3절)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꾀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4절)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것을 주며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5절) 나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6절) 나는 말재주가 별로 없지만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8) 고후 11:6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소위 특출한 사도들에 비해서 ‘말에 있어서는 평범한 사람[=이디오테스(그리스어)]’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2사도가 말에 있어서 바울 사도보다 훨씬 뛰어난 연설가들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왜냐면 행 4:13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다. 또 행 26:24-25에서는 바울이 해명하자 총독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바울, 그대는 미쳤구나!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미쳐버렸구나!”라고 외쳤다.

다. 여기에 바울이 대답했다 “존귀하신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
니다. 진리와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9) 고린도의 이 유대주의적 거짓 형제들은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
서 2장에서, 12 사도에게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자신들뿐 아니라 온 에클
레시아에게 율법을 부과하려고 날뛰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행15:1-5에서는

(1절) 유다에서 몇몇 사람이 안 옥에 와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명하
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다.

(2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
졌다. 결국 에클레시아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다른 사도들
과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

(5절)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 몇이 나서
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일러주어야 한다
고 말했다.

갈 2:4-5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신자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고 우리는 조금도 양보하
지 않았다.

(10)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강림절(오순절) 이후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이 에클레시아에 들어왔다고 있다. 행 2:1-7이다. 오순절이 되어 성도
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
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찼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
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의 수효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또 행 15:5에도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 몇이 나섰다고 하였다.

(11) 이른바 이 수준 높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높은 신분과 깊은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허세와 편견을 함께 가지고 와서 12사도 같은 단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 사람들은 12 사도를 경멸했고, 자신들의 신학적 박학의 수준에서 볼 때 이토록 영광스런 임무가 그토록 보잘것없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을 개탄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 뻔뻔스럽게 12 사도로부터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지도권을 잡아채려고 시도했다.

또 ‘이른바 수준 높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에 바울 사도에 반대하는 것 못지 않게 12사도의 방침에도 반대하고, 겉으로는 12 사도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결국 바울 사도가 세운 모든 에클레시아에서 바울 사도가 곧 부딪치게 될 바울 사도에 대한 전도 방해공작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고린도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름 붙인 그리스도 당파를 만들었다고 대다수의 주해자가 분명히 주장한다.

고전 1:11-12에, 나는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떠돌고 다녔던 것으로 알 수 있다.

(12) 이 경우 그 호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즉 그리스도의 당파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폴로 같은 전도자에게 열광하지도 않고 12 사도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에만 호소하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바우어는 그리스도의 당파와 베드로의 당파는 이름이 다를 뿐 동일한 당파라고 주장한다.

(13)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의 적들과 바울 사도

의 갈등은 그 절정기가 지나 있었다. 고린도후서의 많은 부분은 승리의 외침이다. 특히 그 7장이 그렇다! 고후 7:4-16에 잘 나와 있다.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으며 크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위로를 받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한 뒤에도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실의에 차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돌아온 것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하고 나에게 잘못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더 기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동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상심은 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은 바로 그 상심이 여러분에게 이뤄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의분이 생겼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은 그 못된 짓을 한 자나 또는 그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인 열성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디도는 이제 여러분 모두의 덕택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 체면을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이제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모두 자기 말을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준 일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4) 고린도후서

1) 바울 사도와 다시 가깝게 지내게 된 고린도 에클레시아의 상당수 신자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2) 결국 고린도 에클레시아 내의 바울 사도의 반대파들이 행복하거나 무력하게 되기 바라며 쓴 서신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13장, 즉 마지막 4개 장은 바울 사도의 반대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최후통첩(최후제안)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14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17절)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하였다.

11장에서 4절부터 보면, 잘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

은 성령과는 다른 것을 주며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빈곤했지만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구실을 찾는 자들에게 그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선다 해도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참 똑똑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의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다섯 번

이나 맛있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세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 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성도(=형제)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 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웠고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 같이 여러 에클레시아들에 대한 걱정과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나는 광주리에 담겨 들창문으로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일도 있습니다.

또 12장에서도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한 사람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에클레시아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준비를 갖춘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의 재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는 일 이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겠고 또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잔 피로 써 여러분을 속여서 내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수탈했다는 말입니까? 디도가 여러분을 수탈한 일 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성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거나 남을 욕하거나 험담을 일삼거나 교만하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 이 있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3장에도 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 둔 바 있었지만 지금 또 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자들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던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능있으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신자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우리가 낙제생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행하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진리에 맞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너무 가혹하게 쓰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권위는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15) 바울 사도는 고린도 에클레시아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뒤인 기원 58년 12월에 고린도에 가서 기원 59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체재한다. 바울 사도는 기원 59년 3월초에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된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갈 계획도 세운다.

행 19:21에는 이렇게 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 봐야겠다 하고 혼잣말을 했다.

(16) 바울 사도의 생각은 이미 로마와 그 서쪽(=서방)인 스페인으로 향했다. 동방(=소아시아와 그리스)에는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의 횃불은 적어도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모든 대도시에는 밝혀졌다. 그리고 그 대도시 주변의 시골들로 복음은 번져나가고 있었다.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도 이미 바나바와 마가가 키프로스 전도 여행 후에 방문했었다.

이제 서방만이 남아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포부와 생각이었다. 바울 사도의 생각은 이러했다

‘이미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졌다. 그러니 로마는 이제 나에게는 단지 경유지 밖에 안된다. 나의 목표는 이제 스페인이다.’

(17) 롬 15:24에는 이렇게 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잠시나마 함께 지내면서 즐거움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야심은 불가피하게 그를 당시 알려진 세계의 끝인 스페인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무가 그를 여전히 지체하게 만들었다. 즉 그동안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로부터 수년간 모은 의연금을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 전해주는 일이었다. 이와 함께 바울 사도는 로마와 스페인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작별 인사도 하려고 한 것이다.

(18) 바울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와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 간의 유대를 굳게 결합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소)아시아 에클레시아의 모든 대표자가 시리아로 출발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모였으나 화물을 실은 배와 화물은 당시 해상교통의 위험이 커졌으므로 마케도니아를 육로로 거쳐 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었다. 유월절 축제(3월말-4월초)를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보내고 성령강림제(5월말)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길을 서둘렀다.

(이어지는 가톨릭성경의 견해는 9월호에 게재하겠습니다.)

형제의 연합

(시편 133편)

한 정 주

제 133편(개역한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 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 3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 톨슨성경

형제의 연합이 제사장을 성결케 하는 기름과 같이 귀하고 새벽의 이슬처럼 신선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133:2,3 교회의 연합은 구약에서 형제의 연합이라는 진리로 중요시되었듯이 신약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진리 중에 하나이다. 왜냐면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133:2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성소의 관유는 감람유를 주로 하고 몰약, 육계, 창포, 계피 등의 향품을 섞어 만들었다(출30:23,24). 이 관유는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져서 온 몸에 흘러내린다. 제사장은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붙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거룩한 기름이 그 모든 이름 위로 흘러내리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환유법(換喩法)이다.

◎ 환유법(換喩法)

사물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와 비유하는 수사법. 비유법.

(네이버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33:3. **혈몬** 산은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높은 산인데, 구름을 잔뜩 모았다가 남쪽으로 보내어 가나안 땅을 비로 촉촉이 적셔 주는 역할을 한다.

2. 그랜드 종합주석, 형제간의 연합의 아름다움

탁월한 직유법과 회화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형제간의 연합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그 복됨을 노래하고 있는 ‘감사 예배시’이다.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반부 1절은 형제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단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어 후반부 2,3절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選民) 이스라엘 연합공동체의 존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이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유기적(有機的)으로 연합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대제사장의 성지 수임(受任-임무나 위임을 받음) 때의 기름 붓는 장면과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는 것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 유기적(有機的)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 것.

133:1 형제가 연합하여 ... 아름다운고. 본시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기랴여아림에 20여년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여 총화(總和-전체의 화합)를 이루게 된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Ewald, Hitzig). 따라서 본절의 ‘형제’는 가족의 개념을 뛰어 넘어 한 조상의 자손으로서의 ‘동족’을 뜻한다. 그리고 ‘동거함’은 육신적인 동거가 아닌 정신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한편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된 한 형제이다(마12:50, 엡4:3-6)

133: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 옷깃까지 내림 같고. 특별히 여기서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머리에 부었던 성유(聖油)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133:3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된 존재요,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혈몬 산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2절의 아론의 머리와 대궐(對句-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을 맞춘 시의 글귀)를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을 상징하며, 시온의 산들은 2절의 옷깃과 대궐(對句)를 이루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한다. 한편 혈몬 산이 이스라엘 중심을 흐르는 요단강의 근원지라는 점에서나 혈몬 산의 큰 구름 층이 시온의 남방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유기

적(有機的) 연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는 말로, 이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시한 것이다.

3. 유희세, 133편

- 1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노래.
**보라, 형제가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 2 마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수염에[까지] 내리듯
아론의 수염이 옷깃에[까지] 내리듯
- 3 마치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여러 산에[까지] 내리듯.
**실로 야하웨께서 복과 생명을
영원히 명령하심이 그곳이로다.**

이 시는 천국의 시민권을 공유하는 기독교자들의 친교의 노래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이기예(새찬송가 220장<통합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곳[형제가 더불어 사는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생명이 영원히 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명이다.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496쪽)

4. 석진우, 가족의 일치

이 시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생생하게 표현한데 있다. 특히 시인이 세 비유에서 모두 ‘요레드’라는 같은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려간다’는 뜻이다. 향유가 ‘내려 흐르고’, 수염이 옷깃까지 ‘내려 흐르고’, 헬몬의 이슬이 예루살렘의 산악까지

‘내려 흐른다’는 뜻이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복이 함께 사는 형제 집단에 내려 흐른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듯하다.

이 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듯하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제 자매간에 성립된 에클레시아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한 것이다.

(시편 노트 하<下>, 석진우 엮어 지음, 도서출판 성실문화, 298-300쪽)

5. 우치무라 간조, 형제(兄弟)의 친목(親睦)

세상에 아름답고 즐거운 일 쳐놓고, 영적인 형제자매가 일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일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는 마치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향유(香油)를 부음 받을 때에, 그 기름방울이 머리에 서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수염에서 옷소매의 구석구석에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주 안에서 단체 가운데서 아무라도 거기서 오는 은혜의 감화를 입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우두머리인 교도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마련이다. 또한 혈몬 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 산을 적시듯이, 온 회중이 같은 성령의 은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곳에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1911년 1월, 성서지연구, 聖書之研究.)

(우치무라간조 전집, 제13권, 설우사, 384-385쪽)

5. 맺으며

시편 133편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 때 찬송으로 사용된 것이다. 본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형제’라 함은 혈연관계의 핏줄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형제를 말한다. 영어성경을 보면

명확하다. King James Version에는 For brethren (같은 교인들, 같은 회원들), Holy Bible과 Good News Bible에는 God's People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있다. 그런데 유희세, 석진우 선생님의 글에는 먼저 혈연의 형제로도 해석하여 공감하지 않아 오늘 발표하는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 본시의 핵심 구절은 1절과 3절의 b,c행이라고 생각된다. 2절과 3절의 a행은 핵심 구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그래서 이 시의 절을 바꾸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는 유희세 선생님의 번역에서 순서를 바꾼 것이다.

- 1 보라, 형제가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 3 b 실로 야하웨께서 복과 생명을
c 영원히 명령하심이 그곳이로다.
- 2 마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수염에[까지] 내리듯
아론의 수염이 옷깃에[까지] 내리듯
- 3 a 마치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여러 산에[까지] 내리듯.

다음은, 3절의 ‘영생’이라는 번역의 차이점이다. 개역한글,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우치무라간조는 모두다 ‘영생’이라고 되어있다. ‘형제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이 곧 영생이다’라는 것.

그런데 유희세 선생님은 ‘실로 야하웨께서 복과 생명을 영원히 명령하심이 그곳이로다.’ 그리고 석진우 선생님은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야하웨는 영원히 복과 생명을 분부하셨다.’라고 하셨다.

‘영생’이라고 번역하면 여러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 유희

세, 석진우 선생님의 번역이 좋다고 생각된다.

※ 그랜드종합주석, 유희세, 석진우, 우치무라간조의 글에서 축복이라는 낱말은 복으로 바꾸었다. (성서신애 2024년 5월호, 60-61쪽에 복과 축복에 대해 참고 바랍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모압과의 전쟁

조 규 철

성경 - 왕하2:14

14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겹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표준새번역)

14 엘리야의 겹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느님 아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공동번역)

BC 1000년경,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삼상10:10) 아마도 사무엘이 신앙을 지도하던 학생들이었을 것입니다. BC 920년경, 엘리야도 벳엘과 여리고에서 얼마간의 무리들을 신앙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발탁하였는데, 그 후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따라 다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지상 여행도 함께합니다. 길갈에서 -> 벳엘 -> 여리고 -> 요단강까지. 길갈이라는 지명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 동쪽 2km 지점,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고, 다른 하나는 벳엘 북서쪽 12.8km 지점에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벳엘에 갈 때와 여리고에 갈 때, 그리고 요단강에 갈 때, 모두 세 번, 자기는 혼자 갈 터이니 엘리사에게 그 곳에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때마다 절대로 스승님과 떨어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벵엘과 여리고에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만든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두 곳의 제자들은 모두 엘리야가 지상에서의 일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엘리사에게 묻자 엘리사는 알고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그 때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 수련생 가운데서 50명이 두 사람을 따라서 요단강가로 가서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겹옷을 벗어 말아서 강물을 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야 ; 이제 야훼께서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 ;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서 갑절(두 배)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서 장자의 몫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 중에서 두 몫을 달라, 다른 제자들에게는 한 몫씩을 주라. 즉, 자기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주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순간을 놓치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을 엘리야에게만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절대로 한 눈 팔면 안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 수레를 끌면서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서 두 사람을 떨어뜨렸습니다.

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엘리사는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겹옷을 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겹옷을 주워 들고 요단강가로 되돌아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겹옷으로 강물을 쳤으나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면서 강물을 치니, 그 때에야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엘리사는 강을 건넌습니다.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 번역 보다는 문맥으로 보아 처음에는 강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공동번역이 자연스럽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너오는 것을 여리고의 선지자 수련생 50명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엘리사를 만나자 앞드려 절하였습니다.

이 50명은 엘리야의 승천을 멀리서 지켜보았는지 아니면 보지 못했는지 불확실합니다. 엘리사는 스승님이 승천했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진짜로 하늘로 올라간 것인지,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고 3일 동안 산과 계곡을 뒤집니다. 그러나 끝내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모압과의 전쟁

모압은 다윗왕 때부터 북왕국의 아합왕 때 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모압은 매년 암양, 숫양 각각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 조공으

로 바쳤습니다. 아합왕이 전사하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는 재위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을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죽자 동생인 요람(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요람은 모압을 정벌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합니다. 요람은 전쟁터로 가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요람의 아버지 아합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전쟁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번에도 흔쾌히 승인합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라는 요람의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요람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묻자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에돔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왕, 유다왕, 에돔왕은 함께 출정합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길로 7일을 행군하는데, 먹을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다고 탄식을 하자, 여호사밧이 가까이에서 예언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나 엘리사가 가까이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이 사실을 알리자 세 왕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자 당신 부친의 예언자와 모친의 예언자에게나 가보라고 냉대합니다. 아합에게 조언했던 400명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에게나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3개국 연합군이 모압군에게 지게 되었다며 간청하자 엘리사는 요람왕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지만, 여호사밧왕의 체면을 생각하여 청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하고 거문고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거문고를 타는 사람이 거문고를 타자 엘리사는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연합군은 엘리사의 조언대로 골짜기에 도랑을 팠습니다.

한편 모압은 연합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징집연령이 된 사람들을 모두 모아 국경에 배치하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습니다.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칠백 명을 뽑아서, 애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자기들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마도 모압인들은 이 일을 보고 그들 사이에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Rawlinson, Barlow) 모압인들의 격렬한 분노를 본 동맹군은 크게 당황하여 더 이상의 전투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감

성경은 북 이스라엘 요람왕이 중심인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회군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후일에 확인되었습니다. 1868년 모압의 고원지대에서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이 비석에 모압의 메사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은 메사의 석비라고 불립니다.

예수전

塚本虎二(김 형 철 역)

제208강 구레네 사람 ---강요당한 십자가---

마가 15장 20b-21절 (마태 27:31b-32, 누가 23:26) 0020 0020

20b 병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도성에서 끌어냈다. 21 그러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나와 지나가던 길이었는 데 다짜고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다. 예수에게는 더 이상 질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병졸들은 예수를 실컷 조롱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갔다. 그 도중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사도 없으나 다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는 한 구절의 간단한 기사가 있다. 그리고 누가에는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이 울었다는 것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설명한다.

20b-21 “끌어냈다”는 지금까지 조롱하였던 관저에서라고도 또는 성읍에서라고도 해석된다. 마태에는 31절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갔다,” 32절에 “나오자”라고 이중으로 적혀있어 분명히 성읍에서 나온 때를 의미하므로 마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한의 “나가셨다”(19:17)도 성읍에서이다. 그러나 요한의 예수는 모든 것들 자기의 의지로 하시기 때문에 (예컨대 10:18을 보라) 여기서도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가신 것이다. 처형장인 골고다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아직 일치하지 않지만 성읍 밖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요한에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읍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19:20), 성 안에서 처형을 하지 않는 것은 유대의 규칙이고(주) 또한 로마의 관습이었다.

(주) 레24:14, 민15:35-36, 왕상21:13 참조. 스테반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행7:58). 또한 히13:12에 예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였다.

예수와 함께 두 사람의 강도가 끌려갔다는 것은 적혀있지 않지만 15:27로 보아서 문제가 없다. 누가는 이를 명기하고 있다(23:32). 복음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당시 종이가 매우 고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다만 예수에게만, 그것도 그의 복음의 근본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자는 자기가 그의 십자가를 형장까지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경우에도 그랬다고 여겨지고 요한은 그것을 명기하고 있으나(19:17) 공관복음서에는 성읍에서 끌어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던 것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고 하여 양자의 기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예로부터 교회의 해석은 제롬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는 관저를 나올 때는 자기가 지고 계셨으나 나중에 시몬을 만나 그에게 지웠다고 하여 양자를 조화시키고 있다. 아마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요한에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당시에 횡행한 이단인 그리스도 가현설(주)의 논거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러진다.

(주) Docetism. 노스탁파의 철학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부정한 인간이 될 까닭이 없다. 그것은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말한다. 유명한 바시리데스와 같은 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여겨지도록 모습이 변화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자신은 시몬의 모습을 취하여 곁에 서있으면서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이레니우스 [대이단론] 1:24:4).

0629 자신이 지고 가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전체가 아니고 그 가로대patibulum 만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거워서가 아니다. 아주 험한 형벌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당당한 것이 아닌 극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무겁지는 않다. 세로대는 미리 형장에 세워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구레네는 북 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이다. 이곳에는 이집트 왕 도레미 1세(라기)가 유대인을 이주시켰다.(주1) 당시 구레네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명백하고 성서의 기사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주2)

(주1) 쉬러 [유대민족사] 3권 52-53쪽, 요세푸스 [아비온] 2·4. [고대사] 14·7·2.

(주2) 펜테코스트 때에 예루살렘에 구레네 사람이 있고(행2:10) 그곳에 구레네 사람의 회당이 있고(동6:9) 그곳에서 안디옥에 구레네 사람이 오고(동11:20), 안디옥교회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동13:1).

0020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한다. 굳이 이처럼 말한 것은 시몬은 유명한 사람이 못되고 두 아들 쪽이 오히려 초대교회, 특히 마가의 대상이었던 로마교회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신약성서 중에 네 번 나와 있는데 그 모두가 각기 다른 인물인 듯 보인다. 이에 반하여 루포는 꼭 한 번 로마서 16:13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린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한 그 루포가 시몬의 아들일 것이라고 한다. 그 설명에 따르면 시몬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마침내 신앙에 들어오고 온 집안이 다 신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나 또는 안디옥에서 그의 아내가 바울을 어머니처럼 돌봐주었다. 그 후 일가는 로마로 옮겨간 까닭에 바울이 앞에 말한 인사를 써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것이다. 시몬은 그 때쯤엔 이미 죽었고 알렉산더는 로마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그다지 허튼 추측은 아닐 것이다. 초대교회는 작은 단체였으므로 이같은 추측이 의외로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0020

이 시몬이 마침 예수가 성문 밖으로 끌려나오셨을 때 시골에서 나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떤 이유로 그곳에 왔는지는 모른다. 협회역에 “교외”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근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원어는 또한 “밭”을 의미하므로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마가, 마태가 말하듯이 니산달 15일, 즉 유월절 날이 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문제가 된다. 근간에는 대부분 시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시몬이 성전에 참여하러 구레네에서 올라온 것인지 또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 교외에 살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근간에는 후설이 많은 것 같다. 교외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 아침 일찍이 성전에 참여하러 집을 나와서 성읍에 들어서려 할 때 이 불길한 행렬과 마주친 것이 된다. 어쨌든 행렬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 뿐이다.

어째서 시몬이 특별히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이미 예수의 제자이고 유대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졸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 학자가 있다(그로티우스, 차안). 그렇지 않다. 다만 불쌍한 죄수에게 동정을 보여준 탓으로 붙잡힌 것이라고 다른 학자는 말한다(란밧하). 후자의 생각이 자연스럽다.

“다짜고짜로”는 협회역에는 “억지로”라고 하였는데, 별로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킨 것 같지도 않다. “억지로”의 원어 안가류오(주)는 징발, 징용이란 의미이므로 어려운 말로 하면 의무가 없는 자를 관권으로 강요하였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예수가 너무나 체력이 쇠하여 지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의 중압에 못 이겨 땅 위에 쓰러지셨다고 한다. 기나긴 여행 길 중에 예루살렘

에서 연일 싸움을 치르시고 더구나 전날 밤 겿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피 말리는 기도, 포박, 여러 번의 심문, 모욕, 학대---이를 생각할 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가 지칠 대로 지치셨을 것은 22절의 “데리고 갔다(주)”가 자기 몸으로 견지 못하고 잡아끌듯이 데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도 추측할 수 있다. 0020

0020 0020

이상은 마가의 기사인데 마태나 누가도 거의 같다. 단 앞에서도 말한 대로 “끌어냈다”가 마태에는 “끌고 갔다”와 “나갔다”의 둘로 나뉘어 있다. 누가는 “끌고 갔다” 뿐이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이 모두 빠져있다. 그들의 독자가 두 사람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시골에서 왔다는 말이 마태에는 없다. 축제일에 발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크로스텔만). 누가에는 마가, 마태의 “다짜고짜로” 대신에 “붙잡아서”라고 되어있다. 누가에는 예수를 끌고 가는 자가 병졸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되어있어 징발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말을 고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크리드)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에는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 뒤로 따라가게 하였다고 되어있다. 시몬을 예수의 참된 제자의 상징으로 삼은 듯 보인다(9:23, 14:27을 보라). 예수는 앞부분을 시몬은 뒷부분을 댔다고 보는 랑게의 주장은 옳지 않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크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제자가 된다고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지금 자기들의 스승이 비틀거리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제자 중 누구 하나 이를 지려고 하는 자가 없다. 여느 제자라면 그래도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제자 중 제1인자로 자타가 인정한 시몬 베드로조차 무거운 짐 밑에 깔리다 시피 허덕이는 자기 스승을 보면서도 뛰어나와 일으켜 세우려는 기미조차 없다. 아니, 전날 밤 자기가 저지른 부인에 진저리가 난 그는 오늘은 뒤를 밟을 용기조차 잃고 어딘가

에 숨어버리기라도 한 것일까.

시몬 베드로를 대신하여 제자도 아닌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 무슨 짓국은 일이란 말인가. 교회의 받침돌이 빠져 달아나서 그 언저리 길가에 나구르는 돌로 이를 대신한 것이다. 진공이 무언가에 의하여 채워져야 하는 것처럼 거지가 이 집에서 쫓아내면 다음 집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걸머져야 한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가 진 것이 아니라 가타부타 못하고 걸머졌던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스스로 원해서 지는 것,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요당하지 않고는 지지 않는 것인 듯싶다(눅14:23). 나만은 하고 자만하는 인간에겐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크리스도포로스의 전설을 상기할 일이다.

십자가는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강요당하는 그 사실에 은혜가 숨어있다. 모든 최고의 선은 강제에서 생겨난다.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그 끝이 흰히 들여다보인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것을 강요당하고 신앙을 배웠다. 하나님의 강요에 저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에게 바칠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또한 최대의 은혜가 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는 얼마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고 아내와 두 아들도 또한 그를 따랐다.

그러나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자기 일가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마치 페루시아에서 왕실의 급한 용무 때문에 역전 인마가 징발되었듯이 하나님의 경륜의 필요상 강제로 징용되었던 것이다. 전 인류의 이름으로 걸머진 십자가이다. 그는 이 명예로운 선택에 등용된 것이다. 건축사가 버린 돌이 모퉁이 받침돌이 된다는 진리는 이 경우에도 들어맞는다. 십자가를 피해 달아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최초로 명예로운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위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설 것이다.

용서와 기다림

The yellow ribbon around old oak tree

(늙은 참나무의 노란리본)

노래 Tony Orando

최 제 현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If you received my letter telling you I'd soon be free, Then you'll know just what to do If you still want me, if you still want me, Oh,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It's been three long years. Do you still want me? (Still want me?) If I don't see a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put the blame on me, If I don't se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Bus driver, please look for me,	난 교도소의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내 편지를 받고 내가 곧 출감한다는 걸 알고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예요 그대 아직 나를 원한다면 그대 아직 나를 원한다면 그 늙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 주세요 벌써 길고 긴 3년이 지났군요. 아직 날 원하시나요? 만일 그 늙은 참나무에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겠어요 내 잘못을 탓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잊어버리겠어요. 만약 그 늙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운전자 아저씨, 나 대신 좀 봐주세요
---	--

'Cause I couldn't bear to see what I might see. I'm really still in prison, and my love, she holds the key. A simple yellow ribbon's what I need to set me free. I wrote and told her please, Oh,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It's been three long years. Do you still want me? (still want me?) If I don't see a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I'll stay on the bus, forget about us, put the blame on me, If I don't se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Now the whole damn bus is cheering, And I can't believe I see, A hundred yellow ribbons round the old oak tree. I'm coming home, mm hmm Tie a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Tie a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Tie a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나는 차마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갇혀 있어요, 열쇠는 내 사랑 그녀가 갖고 있죠. 단지 노란 리본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데 필요해요. 그녀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썼지요 고향의 늙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어달라고요. 3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대 지금도 나를 원하시나요! 만약 고향의 옛 참나무에 리본이 없다면,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내 잘못을 탓하며 우리 일들은 모두 잊겠어요 만약 고향의 늙은 참나무에 리본이 달려 있지 않다면. 버스 안의 모든 승객이 환호를 지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늙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백 개나 있어요. 나는 고향으로 갑니다. 음음 늙은 참나무에 리본을 묶으세요 늙은 참나무에 리본을 묶으세요 늙은 참나무에 리본을 묶으세요
팝 그룹 토니 얼랜도 앤 던의 대표곡으로는 “Knock three times”와 “Tie a yellow ribbon”이 있으며 이곡은 어윈 레빈(Irwin Levine)과 러 셀 브라운(Russel Brown)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1973년 빌보드 핫 100에 4주 동안 1위를 차지하였고 당년에만 910만 장 이상이 팔려 그해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가스펠은 아니지만, 내용이 사랑과 용서의 감동적인 가스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찬양대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또 1972년에 만들어진 팝음악이며 민요도 아닌데 노래의 배경에 대해 상당히 많은 주장이 있으며 인터넷을 보면 저마다 그럴듯한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많이 소개되는 배경으로는 멀리 남북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3년 만에 돌아오는 병사의 이야기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풀려난다는 표현이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I’ve done my time”이라는 표현은 나는 교도소의 형기를 치렀다는 뜻도 되지만, 의무기한을 끝냈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I’d soon be free”도 형기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인지 군복무를 끝내고 자유 신분이 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전쟁포로로 잡혀 있던 군인이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위해 전장에 갔던 사람이 죄를 지은 듯이 집을 기웃거리는 것은 이 노래의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경 이야기가 많은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의 나라답게 소송에 휘말립니다. 1971년 뉴욕포스트의 칼럼리스트인 피터 헤밀이 기고한 컬럼 “Going home”이 발단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 가는 버스에 탄 대학생이 만난 한 출소자가 노란 리본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많은 관심을 끌면서 1972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다시 소개되었고, 같은 해 미국 ABC방송국에서는 이를 각색한 드라마까지 제작하여 방송했는데, 바로 이듬해인 1973년 “The

yellow ribbons around the old oak tree”가 대 히트를 기록하자, 피트 헤밀은 자신의 칼럼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저작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피트 헤밀이 패소했는데, 미국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칼럼을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1959년 어느 법학자가 캘리포니아 Chino의 교도소장에게서 들은 말을 토대로 쓴 ‘Star wormwood(별쑥)’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열차를 타고 가던 두 남자 중 한 남자가 말하기를, 그는 죄수로 멀리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가 5년 만에 출옥했는데, 가족들은 너무 가난해 찾아오지도 못하고 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 편지를 썼는데, 철도 가까이 있는 큰 사과나무에 흰 리본을 묶어 두면 가족들이 아직도 그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기차에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으면,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새 인생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점차 가까워지는데 차마 밖을 볼 자신이 없었고, 그의 친구가 대신 창가에 앉아 사과나무를 찾아보았는데 시간이 지나 고향 땅을 지날 무렵, 친구는 그 남자의 팔을 잡으며, “바로 여기야, 저기 봐! 흰 리본이 나무 전체를 덮고 있어!”라고 합니다.

피트 헤밀의 칼럼보다 12년 먼저네요. 패소할 만하지요? 이 노래의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추측들이 있으니 각자 입맛대로 상상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인공 처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전히 갇혀 있어요. 열쇠는 내 사랑 그녀가 가지고 있지요”에서 노래의 주인공이 몸은 감옥에서 풀려났으나, 그녀에 대한 마음의 빙으로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의 몸이 된 것보다 그녀에게 진 마음의 빙으로 고통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직 그녀의 곁에서 빛을 갇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낸 채 그 마을을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망설임과 죄의식은 그녀의 변치 않은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벅찬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돌아온 이의 기쁨 일 뿐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이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듣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기다림이 주는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이 노래의 주제가 되었을 법한 누가복음 15:11-32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감동적이지만 너무 유명하므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하고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동기와 세상의 기준의 두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모두가 고민이나 불안을 안고 찾아오거나, 뭔가 현실에서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자들은 필요에 의해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회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1818-1883)는 종교를 사회구조의 산물로 해석했습니다.

억압받는 계층이 현실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적 환상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며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사회가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사회제도와 규범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 종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에 의해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철학자들의 주장은 기원전부터 쉼 수도 없습니다. 현실이 고단하고 무서울수록 현실 밖에 무엇인가 있기를 고대하면서 종교가 생겨났다는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라

는 거대한 울타리가 인간에게 인식의 한계이기도 해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찢찢하지만 필요에 의해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부분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원해서 찾아오지는 않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아들도 돌아온 이유를 부모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서 굶주림을 해결할 마지막 시도로서 아버지를 찾아왔다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돈. 중독. 경쟁 등 개인적인 문제, 만남이나 소속감 등 사회적 기대, 교회 건물의 역사성이나 예술성. 분위기. 등 문화적 요인, 그리고 호기심도 큰 요인이며 가슴이 답답해서 무작정 찾아와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배가 고파서 선교사를 따라 교회에 오게 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탕아(蕩兒)가 돌아온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 찾은 아버지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 찾아온 목적을 이루었지만, 뜻밖에도 더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돈 많은 아버지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성서에는 마치 ‘돌아온 아들’의 시리즈 속편과 같은 교훈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느니라(마 13:44)’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 함은 자신이 미처 몰랐던 것을 만난 것을 말하며,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다'라는 말은 자신의 욕망과 소유를 다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비유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 또는 우연히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세상의 물질적 풍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원하게 된다는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설픈 동기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도 곧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교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교훈은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기도 하며, 신앙의 후배들이 하나님을 처음 찾게 되는 동기와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합니다.

다음은 형의 불평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 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누 15:29-30)”

형의 항변은 죽을 고생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편협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틀리지 않았으며 정당합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 정신이며 현행 법률이며 또한 우리들의 상식이고 세상살이의 기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도 철없는 자식을 엄히 책망해야 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흥청망청 탕진한 동생은 형의 밑에서 일하며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준에 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와 같은 존재이며 돌아온 아들에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용서하고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그럴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한이 형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동생 뿐 아니라 형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모두 그 권한의 혜택을 모두가 받게 되므로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권한을 인간을 지배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데 쓰십니다. 하나님 권한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누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생을 비판하는 형의 도덕적, 율법적 기준의 한계와 하나님의 이런 권한사용에 대해서는 마태 19:19-26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께서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시는데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이 청년이 미리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였으면 되었을 텐데 이 청년은 딱하게도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가는 원칙만 알았습니다.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고 우리의 상식에 맞는 바른 길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선을 이루기가 불가능한 것을 세상살이의 경험이 가르쳐줍니다.

사실 부자 청년에 대해 천국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많은 사람을 외면하고 재산을 창고에 쌓아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정당할까요?

세상살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가 장사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사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법과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만,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경쟁자조차 서로 도움을 주고 고받는 친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관계’는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은 법과 돈만으로 장사한 사람과 같습니다. 어쨌든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과 형의 입장이 율법 정신, 즉 도덕적 기준의 한계를 말합니다.

동생에게 분노한 형이 살아가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기준도, 그리고 건전한 부자 청년도 스스로의 기준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이 가려 하는 길은 인고의 바른 길이되 완전할 수 없으며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완전해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곧 구원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굳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설마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마 5:17)”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매일 저녁 기도하며 하루를 반성하시겠지요?

삶이 기도였던 마하트마 간디나 헬렌켈러 같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창한 목표는 언감생심,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사색으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도록 노력은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반성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나는 반성하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으름과 안일 속에 지나간 나날들, 별반 다르지 않을 내일과 모레…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용서의 권능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은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본 교훈은 하나님을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설픈 동기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항상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 가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1. 일시 :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11월 3(일) 오후 3시까지 (1박 2일)
2.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 141 (문당 환경농업 마을)
3. 전화 : 041-631-3537, 010-4591-4438
4. 참가비 : 1) 1인 50,000원
강당 대관료(1만5천원), 교재비(5천원), 식사(3식, 3만원)
2) 숙박을 하시는 분은 20,000원 추가입니다.(3인실 기준)
5. 참가 신청 : 9월 10일까지
 - 각 집회 대표에게 말씀해주시거나,
 - 운영자 손현섭(010-2060-5534)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십시오.
6. 강의 프로그램
강의를 해주실 분은 김철웅 선생, 진영선 선생, 장문강 선생, 조규철 선생, 조득환 선생, 반영운 선생, 배지현 선생, 손문일 선생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귀한 강의를 수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7.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
집회 장소에서 약 100m 인근에 어린이 자연환경 체험장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빵 만들기,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2회(첫날 오후, 둘째날 오전) 운영하려고 합니다. 만 2세 이상 초등학생까지 참여 가능하니, 아이들을 동반하여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주최측이 부담합니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우리 집의 영앤리치>

요즘은 젊은 부자,
영앤리치(young & rich)가 많은 세상.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있으니,
인생 10년차, 초등학교4학년인데
자타공인 슈퍼리치다.



소중한 내 돈
절대 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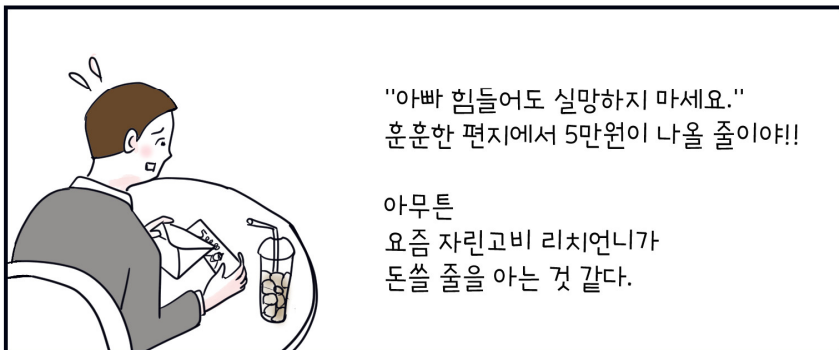
설날 세뱃돈도,
삼촌 이모의 금일봉도,
100점짜리 시험지 상금도
첫째, 지갑에 가둔다.
둘째, 꺼내지 않는다. 네버!

아주 짠내나는 리치언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네!

그랬던 리치언니가 달라졌다.
할아버지의 걱정을 들은 후부터.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 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눅 16:11)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④)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월간 성서신애 제515호 2024년 8월

인	쇄	2024년	8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애 사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